

“선생님 덕분에 수학여행 떠나요”

포항 기계중 상옥분교생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학여행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북 포항시 기계중학교 상옥분교 전교생 13명이 체육담당 최인호(50) 교사의 동해안 도보 종단(본지 7월 21일자 A9면 보도)에 힘입어 16일 수학여행을 떠난다.

지난 7월 120만원에 달하는 관광버스 대절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안 597km 도보 종단을 마친 최 교사의 통장에는 최종 27명으로부터 180만원의 후원금이 담겼다. 최 교사는 당초 이 같은 초과 모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동장회 홈페이지(www.daegungo.net)와 자

최인호교사 도보종단 후원금으로 경비 마련 내일 전교생 13명 새만금방조제 등 돌아바

신이 가입한 여행카페(cafe.sayclub.com/@travel475)에 계좌번호가 아닌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을 남겼지만, 몇몇 후원자들이 이메일로 계좌번호를 문의한 지 한참 뒤에야 후원금을 입금한 것. 이 밖에도 학교측은 교무실과 최 교사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300여 통 이상의 후원금 문의 전화를 사양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여기에 “교통비를 제외한 경비는 우리 힘으로 내겠다”며 학생들이 이끈 후원금이 26만원이 더해졌다. 관광버스 회사도 거들었

다. 본지 보도를 통해 최 교사의 도보 종단 소식을 알고 있던 관광버스 회사측에서 이달 초 학교측에 기쁨값과 운전기사 숙박비 등 원가(原價)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포항 영진관광 양춘호(58) 대표는 “버스를 무료로 대절해 주려 했지만 학교측이 완강하게 사양해 원가인 70만원을 타협점으로 찾았다”며 “학생들을 위해 그동안 여윌 보름씩이나 땀 흘린 선생님을 생각하면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학교측은 남은 돈을 숙박비, 간식

비, 여행지 입장료 등으로 쓸 계획이다.

상옥분교의 수학여행은 16일 전북 부안·군산의 새만금방조제, 고창의 고인돌 갯벌, 보성 녹차밭, 순천 낙안읍성 등 호남 일대를 돌아본 뒤 18일 대구에서 방송국 견학과 놀이공원 방문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 2박3일 일정. 올 초 전교생 회의 시간에 학생들이 희망했던 낙조(落照)와 갯벌, 녹차밭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학교 3학년 손예락(15)군은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땀 흘려 주신 덕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립니다”며 “수학여행이 시작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대구=장성진기자 (블로그)jhin.chosun.com



경북 포항시 기계중학교 상옥분교 최인호(50·맨오른쪽) 체육교사와 전교생 13명, 관광버스 대절료 문제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학생들은 최 교사의 동해안 도보 종단에 힘입어 16일 드디어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다. 기계중 제공

전교조 25일까지 ‘APEC수업’ 실시 동영상 일부에 또 비속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바로알기’ 수업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이번에 마련한 수업안은 지난번 전교조 부산지부 ‘APEC 바로알기’ 수업안과 마찬가지로 학생·교사용 자료와 동영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교조는 “APEC 바로알기 수업은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교사용 참고 자료로 구성된다”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진실을 깨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PEC의 다면성’이란 제목의 11분짜리 동영상에는 APEC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교조 부산지부 수업안과는 달리 욕설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캐리커가 등장해 APEC을 소개하면서 ‘생태’, ‘지들 나라’, ‘맥아지(목)’ 등의 비속어를 쓰고 있다. 또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작년 고(故) 김신일 씨가 살해되기 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장면을 담았다.

안석배기자 (블로그)sbhan.chosun.com

“자연과학도 돈 벌 수 있어”

서울대 김선영교수 설립 ‘바이로메드’ 내달 코스닥상장

“자연과학은 좋아서 할 뿐이고 돈도 못 번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3층. 김선영(金善榮·사진) 생명과학부 교수 책상 위엔 오는 21~22일 기업설명회 때 사용할 ‘바이로메드’ 회사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바이로메드는 1996년 11월 김 교수가 세운 서울대 실험실 창업 1호 벤처기업. 유전자 치료제를 상용화할 목적으로 세운 이 회사가 다음달 코스닥시장에 공식 상장된다.

서울대 교수들이 세운 벤처기업 중 서정선(徐廷瑄) 의대 교수의 ‘마크로젠’, 박희재(朴喜載)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의 ‘SNU프리지온’에 이어 세 번째로 코스닥 무대를 밟게 됐다. 의학이나 공학 분야와 달리 기업화가 힘들다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김 교수는 바이로메드를 통해 서울대 벤처기업으로서의 처음으로 코스닥에 진출했다.

김 교수는 5명 남짓한 실험실한 귀퉁이를 보여주며 “이곳이 바로 바이로메드의 탄생지”라고 소개했다.



대학원생 제 2명과 함께 출발한 이 회사는 지금 박사 5명과 석사 15명의 연구진 등 3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체로 성장했다. 서울대 후문 낙성대 인근에 4층짜리 번듯한 회사 건물도 마련했다.

김 교수와 ㈜뉴신자 등이 주로 참여해 2억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은 지금 37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는 “이번에 공모주 청약의 받아 47억원 수준으로 자본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당뇨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족부궤양 치료제와 항암치료시 흔히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 증세를 치료하는 바이오 신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심장병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블로그)hellojin.chosun.com

시동 켜 차에 주유팬 주유소측에 과태료 최고 200만원까지

다음달 10일부터 시동을 켜둔 채 주유하는 자동차가 적발되면 주유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10일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기체화된 휘발유 유증기(油蒸氣)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고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반처량이 적발되면 주유소장 등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면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우기자 (블로그)ye249.chosun.com



“쌀협상 국회비준 절대 안돼!” 14일 오후 전국농민연맹(전농) 회원들이 서울 명동성당에 베풀어준 쌀 1000가마를 기증적으로 쌓아놓은 뒤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덕훈기자 (블로그)leedh.chosun.com

가짜 은행사이트로 개인정보 뉘시질

억대 빼낸 ‘피싱 사기단’ 첫 검거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에 입력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피싱(phishing)’ 기법을 통해 예금을 불법 인출한 일당이 처음으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국내 H은행의 위장 사이트를 개설, 네티즌들의 ID와 비밀번호, 계

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총 12명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27)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8월 12일쯤 H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시켰다. 인터넷 카페에 ‘저리(低利) 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

고 연락한 고객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빼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계

좌이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피싱 수법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낸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피해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 홈페이지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인터넷뱅킹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희기자 (블로그)rhpark.chosun.com

2006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

세상보다 더 큰 가능성을 키워주실
유능한 교수님을 모십니다

전 세계 26개 대학과
지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양여대!
그 중심에서 세상과 호흡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주십시오.

한양여자대학
HANYANG WOMEN'S COLLEGE
www.hywoman.ac.kr

초빙분야: 전임교수·겸임교수

학 과	인원	초빙분야	지원자격
유아교육과	0	유아교육	· 박사학위 소지자 · 유차원 현장 경력자
치위생과	0	치위생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치과임시 면허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치위생학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치과 위생사 면허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아동복지과	0	교육학	· 박사학위 소지자
		사회복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보건행정과	0	보건학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초의학 강의 가능인 자

나. 겸임교수

학 과	인원	초빙분야	지원자격
인상디자인과	0	복식디자인(미용학)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 영 과	0	이론경제·경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여성인력개발과	0	교육학(산업교육)	· 박사학위 소지자
치 위 생 과	0	치위생학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치과임시 면허 소지자
		상업실업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아동복지과	0	사회복지	· 박사학위 소지자
		영유아교육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보건행정과	0	위생학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지원자격(공동)

가. 전임교수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겸임교수
①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산업계 등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중인 자
③ 일용직인 동안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④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임용내용

가. 전임교수
임용일은 2006년 3월 1일이며 최초임용은 2년인
재명령 하고 재임용은 교수자격 평가에 따라 결정함

나. 겸임교수
임용일은 2006년 3월 1일이며 1년간 계약임

서류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

구 분	접수일정	안내사항
접 수	2005. 12. 31(금) ~ 2005. 12. 14(수)	· 본 대학 학사처에서 영문 접수 · 영문(영문/한글) 및 영문(영문/한글)은 반드시 도봉캠퍼스
1차 합격자 발표	2005. 12. 30(목) 예정	· 본 대학 홈페이지 참조 (www.hywoman.ac.kr)
면 접	2006. 1. 14(목) 예정	· 본 대학 지정 강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06. 2. 7(화) 예정	·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인용지형서(소장서신)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본인이나 남긴 번역본을 첨부
- 단. 외국어 시험 합격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증서 사본 첨부
- 경력증명서(지원분야의 모든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소속기관장 동의서 및 사인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연구실적증 각 1부
- 석·박사 학위논문과 최근 4년 이내(학사·석사·임용일 기준) 발표된 논문 및 저서 등
- 주안동태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재용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재산권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임교수 지원자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겸임교수 지원자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전임교수
초빙 심사는 1, 2차 심사로 나누어 실시함

나. 1차 심사(면접심사): 초빙분야의 전문성 여부, 대학 내외의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을 심사

다. 2차 심사(면접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인성 등을 심사

기타

가.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심사를 실시함

나. (1차) 심사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확인하여야 함

다. 초빙분야·지원자격 불일치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음

라.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본인이나 남긴 번역본을 첨부

리. 2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복수지원 불가

로.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를. 심사위원은 내부 및 외부교수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를. 해당 초빙분야 자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를. 최종합격자는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 강의가 가능하여야 함

를. 제출한 논문은 본 대학 영문, 저널용 영문 등의 연구용적 평가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실적평가 2006년 2월 28일까지 반환 함

를. 기타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학사협력처로 문의 바람

※ 기타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학사협력처로 문의 바람 • TEL : 02)2290-2013 • FAX : 02)2291-6111